

KIA, 신예부터 베테랑까지 고른 활약에 ‘6월 반등’



KIA, 2025 시즌 전반기 결산·전망 <중>

KIA 타이거즈가 부상 약재 속에서도 6월 반등을 이뤄내며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을 증명했다.

개막 이후 두 달여간 이어졌던 침체기를 벗어나기까지는 베테랑들의 노련미와 신예들의 깜짝 활약이 팀을 버티게 한 원동력이 됐다.

최형우는 올 시즌 83경기에서 타율 0.329(289타수 95안타)를 기록하며 리그에서 단 9명뿐인 3할 타자 반열에 올랐다. 14홈런, 24개의 2루타를 생산하며 장타력을 뽐냈고, 55타점 50득점으로 중심 타선의 역할을 묵묵히 해냈다. 특히 KBO 5월 MVP를 수상하며 역대 최다·최고령 수상 기록을 동시에 갈아치우는 위업을 달성했다.

포수 김태군은 ‘수비형 포수’라는 평가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보여줬다. 지난 4일 롯데전 동점 상황에서 2사 만루에 결승타를 터뜨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고, 각종 수비 지표에서도 리그 최정상급 평가를 받고 있다. 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RAA)는 +4.31로

최형우·김태군 팀내 기동 역할
오선우·고종욱·김호령 주전 도약
김도현·성영탁 등 마운드 지탱

전체 포수 1위, 블로킹 능력도 리그 선두다. 도루 저지도 10개로 리그 상위권에 올라 있다. 투수 리드, 주자 견제, 경기 분위기 조율까지 ‘조용한 감독’ 역할을 수행하

며 팀의 중심을 지켰다.

올해 첫 세 자릿수 타석을 소화 중인 오선우는 타율 0.307(244타수 75안타), OPS 0.840을 기록하며 입단 7년 만에 1군 주전으로 도약했다. 득점권 타율도 0.310으로 팀 타선의 활력소가 됐다.

고종욱 역시 대타 자원으로서 리드오프로 자리잡는 반전을 써냈다. 지난달 콜업된 이후 타율 0.328(58타수 19안타) 2홈런 10타점 8득점을 기록하며 득점 기회를 꾸준히 창출하고 있다.

타격 약점이 뚜렷했던 김호령은 이범호

감독의 지도로 달라졌다. 5월 이후 타율 0.284(148타수 42안타)를 기록하며 개인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지난 5일에는 데뷔 첫 홈런과 첫 만루홈런을 동시에 터뜨리는 멀티포를 쏘아올렸다.

투수진에서도 김도현과 성영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전반기 팀을 지탱했다.

김도현은 16경기 90.2이닝을 던져 평균자책 3.18, 4승 3패를 기록하며 국내 선발투수 중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해보다 낮아진 피안타율과 안정된 제구력

이 눈에 띈다.

신인 성영탁은 5월 1군 데뷔 이후 13경기에서 17.1이닝 무실점 투구를 이어가며 구단 역대 데뷔전 이후 최장 연속 무실점 기록(13.2이닝)을 새롭게 세웠다.

김규성, 김석환, 박민 등 대체 자원들의 분투도 조용한 반등의 배경이 됐다. 특히 내야와 외야를 오가며 필요할 때 제 몫을 해낸 김규성과 김석환, 기민한 수비와 짧은 타격으로 찬스를 연결한 박민은 선수층 불안을 덜어낸 숨은 주역들이다.

이범호 감독 체제에서 첫 시즌을 보내고 있는 KIA는 전반기 내내 주전 투수들의 이탈이라는 고비를 맞았지만, 새 얼굴들과 베테랑들이 만들어낸 상승세로 6월 반등에 성공했다.

이범호 KIA 감독은 “선수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다. 후반기에도 단단한 팀 야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베테랑 최형우(왼쪽부터)가 팀을 이끌고, 오선우·김호령·성영탁 등 주축, 신인 선수들의 기량 향상이 더해지며 KIA타이거즈는 2025시즌 상반기를 4위로 마무리했다. KIA타이거즈 제공

광주체육고 조정 김지선, 생애 첫 국가대표 선발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 1위 “책임감 갖고 성장해 나갈 것”

광주체육고 조정부 김지선(3년·사진)이 생애 처음으로 성인 국가대표에 발탁됐다.

15일 광주체고 조정부에 따르면 김지선은 지난 9~10일 충북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2025 조정 국가대표 선발전 여자 경량급 싱글스컬(LW1X)에서 1위를 차지해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선발전은 수상 점수(70%)와 에르고 점수(30%)를 더한 상위 순위 3명을 국가대표로 뽑았다.

김지선은 여자부 경량급 싱글스컬(LW1X) 수상 경기 결승전에서 8분24초82로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 70점을 획득



했다. 안희주(포항시청)가 8분28초로 2위(66.5점), 장민이(포항시청)가 3위(63점)로 뒤를 이었다.

김지선은 실내조정 훈련기구인 에르고미터 레이스에서도 7분30초2로 1위를 기록, 30점을 받았다. 2위는 장민이(28.5점), 3위는 박재언(27점·진주시청)이 차지했다.

김지선은 수상 점수와 에르고 점수를 더한 합계 100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2위 안희주(총 92점), 3위 장민이(총 91.5점)와 함께 국가대표에 승선했다.

여자 싱글스컬(W1X)에 출전한 김정민(광주조정협회)은 4위를 차지해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체육고 조정부, 충주탄금호배서 금3·은1·동1

광주체육고등학교 조정부가 제14회 충주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서 5개의 메달을 수확했다.

광주체육고 조정 선수단은 지난 11~13일 충북 충주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강준우(3년)가 남자18세이하부 경량급싱글스컬(L1X)에서 7분31초45 기록으로 한승운(인천체고·7분35초19)과 서정완(서울체고·7분40초78)을 따돌리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김지선(3년)·배지영(1년)은 여자18세이하부 경량급더블스컬(L2X)에서 7분54초26으로 부산체고(8분11초45)와 예산여고(8분12초06)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점에 도달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천지민·노효림(이상 1년)도 여자18세이하부 더블스컬(2X)에서 7분48초87로 서울체고(7분53초10)와 부산체고(7분59초36)를 따돌리고 가장 빠르게 결승점을 통과했다.

김지선·배지영·천지민·노효림은 여자18세이하부 쿼드러플스컬(4X)에서 7분24초40 기록으로 1위 서울체고(7분19초20)에 이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준우(3년)·박성빈·박준호·강한경(이상 2년)은 남자18세이하부 쿼드러플스컬(4X)에서 6분39초83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신영금 광주체고 조정감독 “선수들의 노력과 엄밀한 교장선생님의 물심양면 지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FC 아사니, 팀 K리그 ‘팬 일레븐’ 선발… 30일 뉴캐슬전 출격

이정호 감독은 수석코치 선임

프로축구 광주FC의 ‘알바니아 특급 공격수’ 아사니(사진)가 팬 투표로 ‘팀 K리그’ 대표로 선발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명문 구단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맞대결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5 쿠팡플레이 시리즈’ 뉴캐슬전 출전 명단을 발표하고, 팬 투표로 뽑힌 ‘팬 일레븐’ 11



인을 공개했다.

아사니는 공격수 부문에서 1만7980표를 얻어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아사니는 올 시즌 K리그와 아시아 무대에서 활약을 인정받아 팬들의 선택을 받았다.

그는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쌓았다. 특유의 감각적인 드리블과 원발 중거리슛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알바니아 특급’이라는 별명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ACL 엘리

트(ACLE) 무대에서도 10경기 9골로 광주의 돌풍을 이끌었다.

아사니는 “K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들과 함께 뉴캐슬을 상대할 수 있어 매우 기대된다”며 “팬들이 보내준 사랑에 감사드리며,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팀 K리그의 수석코치로는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선임돼, 아사니와 함께 광주를 대표해 필드를 누빌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광주서석고, 춘계 전국중고검도대회 단체전 우승

서석중 단체전 3위·개인전 준우승

광주서석고가 제67회 춘계 전국중·고등학교 검도대회 고등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년 만에 정상에 복귀했다. 중등부에서는 서석중이 단체 3위, 개인 준우승을 기록하며 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서석고 검도부는 지난 13일 전남 강진 제1실내체육관에서 끝난 이번 대회 남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온양용화고와 3-3으로 비겼으나 포인트에서 5-2로 앞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서석고는 1회전 치악고(3-3 무·포인트 7-5 승)와 2회전 원통고(3-3 무·포인트 5-5 무·대표전 승)를 접전 끝에 꺾은 뒤 3회전 명신고(2-1 승), 준결승전 인천고(3-3 무·포인트 6-4 승)를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다.

온양용화고와의 결승에선 선봉 서규원이 0-0으로 비기고 2위 안일웅이 2-0 승

리를 따내며 기선을 잡았다. 이어 3위 오승준과 중견 채희준이 연달아 0-1로 저경기 스코어 1-2로 뒤집혔다. 5위 강현우가 1-0으로 이겨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부장 정우민이 2-0으로 이겨 역전에 성공했고 포인트에서 5-2로 앞서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후 주장 이정환이 0-2로 졌으나 승부는 끝난 상태였다.

이로써 서석고는 65회 대회 단체전 우승 이후 2년 만에 정상을 탈환했고, 올시즌 제8회 대한검도회장기(6월)에 이어 두 번째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주장 이정환은 남고부 개인전에서도 3위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이정환은 경기 내내 침착한 기량과 빠른 판단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상대들을 연이어 꺾으며 준결승까지 진출했으나, 김도원(원통고)를 상대로 0-1로 패했다.

광주서석중 검도부는 남중부 단체전 3위를 차지했다.

서석중은 1회전 서원중(4-1 승), 2회전 원통중(3-1 승), 3회전 형남중(3-1 승)을 연이어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하지만 준결승서 상인천중에 1-1 무승부를 거뒀으나 포인트에서 1-2로 졌다.

서석중 육하준은 남중부 개인전 결승에서 배용환(익산고)에게 0-1로 져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강산광주서석고부장교사는 “선수들의 땀과 팀워크가 만든 값진 결과였고 서석중과의 유기적인 훈련 시스템이 성과의 밑거름이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서석중·고는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꾸준히 상위권에 오르며 광주 지역 검도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는 지역 검도 저변 확대와 유소년 인재 양성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동환 기자